日 불교계 미투…日 불교, 왜 침묵하나

2024년 비구니스님 폭로 무시
日 불교계 세습적 구조가 원인
종단 간 경쟁, 불교계 논의 불가
"불교계 하나의 목소리 필요해"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천태종의 총본산인 엔랴쿠지. 사진출처=변호사 JP뉴스

지난해에는 일본 불교계 내 성범죄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다. 특히 일본 천태종 비구니스님인 에이쇼 스님이 약 14년에 걸쳐 성폭행을 당해왔음을 폭로해 전 일본 사회가 분노했다. 이에 일본 불교계는 1년이 넘도록 침묵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일본 법조계 매체 '변호사 JP 뉴스'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하며 해당 사건을 분석했다.

변호사 JP 뉴스 측은 일본 불교계가 에이쇼 스님의 폭로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이유가 일본 불교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에이쇼 스님이 속한 일본 천태종 내부 관계자는 "에이쇼 스님의 폭로 직후 종단에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교계를 넘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자 징계 조치 등에 나서기 시작했다"며 "만약 주목을 받지 못 했다면 스님의 폭로는 그대로 지워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천태종 관계자는 "일본 불교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세습을 통해 스님이 되는데, 종헌종법에 따라 멸빈된 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세계로부터 추방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세습될 경우, 부모가 은사가 되며 같은 종단 혹은 같은 지역 사찰이라면 스님 간 친척인 경우가 많다"면서 "한 스님이 문제를 일으키면 은사인 부모와 가족, 친척이 있는 타 사찰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짚었다.

더불어 변호사 JP 뉴스 측은 일본불교가 가진 '종파불교'의 영향으로 일본 불교계 문제가 가시화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타 종단과 경쟁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한 일본 불교계는 타 종단의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청한 정토진종 혼간지파의 한 비구스님은 "전체 불교계는 한 종단의 문제를 언급할 수 없다는 불문율이 있다"면서 "자신의 종단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타 종단의 어떤 일도 사소하게 생각하는 스님들이 많다"고 전했다.

변호사 JP 뉴스는 내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며 일본 불교계 스스로의 자정과 쇄신을 요구했다. 매체는 "일본 불교계가 가진 폐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일반 대중사회와는 동떨어진 가치관과 행동 방향을 가지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불교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불교계에서 발생한 하나의 폭로를 '특정 종단의 일'이 아닌 '불교계 전체의 일'로 받아들인다"면서 "이런 문제는 모든 종단이 공통으로 해결할 과제이기에 불교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플럼 빌리지 화재…틱낫한 스님 요사채 소실

세 승원 中 자운당 대부분 소실
요사채 복원 위한 가금 모연 시작


화재가 발생한 당시의 자운당 모습.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베트남 출신 불교지도자 틱낫한 스님이 프랑스에 세운 수행센터 플럼 빌리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국제 불교 뉴스 온라인 매체인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1월 28일 보도를 통해 1월 23일 발생한 플럼 빌리지 화재 소식을 전했다.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 인근의 플럼 빌리지(Plum Village)는 틱낫한 스님이 세운 승가 공동체로 1982년 작은 농장에서 시작됐다. 틱낫한 스님이 세운 여러 수행센터 가운데 가장 크고 최초라는 의미가 있어 총본산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현재 전체 부지 안에 법운사(法雲寺), 감로사(甘露寺), 자엄사(慈嚴寺) 세 승원으로 나뉘어 운영 중이다.

플럼 빌리지와 틱낫한 재단에서 23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화재는 이른 아침 감로사 구역에서 발생해 자운당 건물을 덮쳤다. 스님들의 요사채인 자운당에는 당시 9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머물렀는데 한 스님이 먼저 일어나 대피시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와 구급대, 경찰 등은 3시간에 걸쳐 화재를 진압했다. 자운당은 대부분 소실됐으며 정면과 북쪽, 남쪽 외관의 일부만 남았다.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으로, 예비조사에 따르면 건물 벽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밝혀졌다.

플럼 빌리지는 성명에서 "스님들이 틱낫한 스님의 유묵과 유품, 도서들을 최대한 구출했으나 이외 물건과 건물들은 대부분 소실됐다. 이 과정에서 비구니스님 한 명이 연기를 흡입했지만 치료를 받아 곧 회복했다"며 "감로사 대중스님들은 화재 진압에 도움을 준 지역사회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틱낫한 스님의 제자들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자운당 건물을 재건하는 작업이 진행 중으로 현재 플럼 빌리지의 여러 계획 중 가장 시급한 사항이 됐다"면서 자운당 건물과 틱낫한 스님의 요사채 재건을 위한 전 세계 불교 커뮤니티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자운당 건물이 플럼 빌리지 최초의 건물이며 틱낫한 스님이 베트남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머물렀던 요사채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플럼 빌리지는 참여불교의 중요한 중심지로 전 세계 수행자를 끌어들인 역사적 장소"라며 "자운당 소실은 물리적 손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적, 영적 손실을 보여준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통역가와 함께하는 웹 세미나

2월 16일, 툽텐 진파 무료 강의
테르가 명상 커뮤니티 주최로


툽텐 진파.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테르가(Tergar) 명상 커뮤니티가 달라이 라마 통역가이자 티베트 불교학자인 툽텐 진파(Thupten Jinpa)를 초청해 무료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

불교 온라인 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의 2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웨비나는 '건강하지 못한 패턴에서 벗아나기'를 주제로 아비달마(Abhidharma) 경전을 통찰하는 데 집중한다.

테르가 명상 커뮤니티는 "툽텐 진파와 함께 아비달마의 실용적 지혜를 전파할 것"이라며 "불교 심리학의 핵심 원리를 배워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건강하지 않은 패턴에서 벗어나 정신적 웰빙을 증진할 수 있는지 알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웨비나는 2월 16일 자정(한국시간) 테르가 명상 커뮤니티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 생중계된다. 툽텐 진파와 대화 후 질의응답 세션이 이어져 참가자들은 직접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다.

테르가 명상 커뮤니티는 티베트 불교 전통 중 하나인 카르마 카규(Karma Kagyu)와 욘게이 민규르 린포체(Yongey Mingyur Rinpoche) 닝마(Nyingma) 명상 스승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다. 고대의 명상법을 현대인에게 접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 현대인들이 명상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툽텐 진파는 전직 승려로 인도 남부의 티베트 불교 사찰 내의 '간덴 수도 대학(Ganden Monastic University)'에서 학위를 받았다. 영국 켐브리지대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85년부터 달라이 라마 영어 통역가로 활동하며 〈A Fearless Heart: How the Courage to be Compassionate Can Transform Our Lives〉 등 티베트 경전 번역본을 냈다. 현재 맥길대 종교학부 겸임교수이자 티베트 고전 연구소 창립회장 소임을 맡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日, 불교 AI챗봇 '붓다봇' 부탄에 수출

경전 번역본 기반 인공지능
부탄스님들 시범 이용 예정


부탄 사찰과 스님들의 모습. 사진출처=게티이미지

일본에서 제작한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붓다봇(Buddhabot)'이 부탄에 진출한다. '더 재팬 타임즈'는 2월 4일 일본 인공지능 불교 챗봇의 해외 수출 소식을 전했다.

'붓다봇'을 개발한 교토대 개발진은 앞선 2021년 팔리어 경전 중 부처님의 가장 오래된 경전 모음집으로 평가받는 '숫타니파타(Sutta Nipata)'의 일본어 번역본 기반의 '붓다봇'을 최초 개발했다. 이후 타 경전도 데이터화를 거쳐 붓다봇에 탑재했다.

개발팀은 2023년 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를 활용해 붓다봇을 리모델링하고 경전에 해석과 설명을 추가한 '붓다봇 플러스'를 개발했다. 이후 부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붓다봇 플러스의 영어 버전이 완성됐다.

이들은 부탄스님 100~200명을 대상으로 붓다봇 시범 운영을 한 뒤 기능을 개선하고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붓다봇은 이르면 2027년 3월까지 부탄의 모든 스님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특히 부탄은 불교에 대한 관심이 적은 젊은 세대와 영어가 이해 가능한 연령층에게도 붓다봇의 배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세이지 쿠마가이 교토대 미래인간사회연구소 교수는 "붓다봇은 사찰 감소 문제를 마주할 일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 가르침을 전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사찰 편백나무 맞춤가구 전문점
스님 건강, '편백가구'로 지킨다
편백(히노끼)나무 효능
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 욕조를 비롯하여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침대 등 가구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데 이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편백나무는 일반나무보다 5.5배 가량 피톤치드가 많아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된다.
편백 온열 그래핀보료
신체 기(氣, Energy)를 충전하고 균형을 바로 잡는 초장파 에너지
건강하고 오래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수면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 피로 회복
• 근육 결림 해결
• 혈액 순환 개선
• 신경통, 근육통 완화
• 만성 피로 해소

편백침대


숙면이 보약
편백 숯침대

FINE 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 4 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